

지역 매아리

순창군 청소년 숨겨둔 끼 발산

4일 일품공원에서 축제 판파르

순창군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산하는 한마당 잔치인 제5회 순창 청소년 축제가 11월 4일 일품공원에서 화려한 막을 연다.

'별이 빛나는 밤에'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순창군이 주최하고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순창청소년문화의집, 순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해 열린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축하공연으로는 아이들가수 제이세라, 비보이 이스트기네스 공연이 펼쳐지고 전주, 남원, 임실 청소년 동아리들의 맨스공연과 관내 밴드동아리 공연이 함께 진행돼 흥을 돋운다. 태권도 K-POP팀인 K타이거즈와 남원시립국악단의 퓨전국악공연 등도 이어진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추억을 만드는 스타킹 대회 미니 올림픽도 진행된다. 물병세우기, 다트, 신발 던지기, 릴레이경기, 림보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되며 사전접수를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건강장수체험과학관

다양한 체험교실 운영 눈길

순창 건강장수체험과학관이 과학생활과 순창의 독특한 치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생활과학체험교실' 운영에 들어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장수체험과학관은 생·노·병·사 4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생명의 신비와 건강장수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독특한 테마의 과학관이다.

인계면 인덕로 427-127번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지난해 4월 문을 열었다.

과학관은 기존의 생로병사 체험을 진행하는 상시 프로그램 이외에 주마다 인체의 비밀, 혈액순환, 교과서 속 과학 등 매주 기획프로그램을 진행해 다양성을 꾀하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 24일부터 '식문화관 음식체험'과 건강장수문화를 한번에 체험하는 '1일 체험 코스'를 본격 운영해 호응을 받고 있다.

식문화관 음식체험은 16~24명 단체 체험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건강 간식과 디저트 등 건강식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체험비는 1인 1만원이다. 식문화체험과 함께 체험객과 개인체험이 가능한 '일코스 체험'도 준비돼 있다. 체험비용은 1인 2만원이며 단체예약제로 진행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령에 생활고... 어려운 노인에게 희망의 끈을”

임실군, 일자리 대폭 확대
농촌사회 롤모델 급부상
일하는 노인, 작년비 37%↑

민선 6기 들어 임실군의 노인일자리 정책이 크게 확대되면서 어르신들이 일하기 좋은 농촌사회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1일 군에 따르면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833명으로, 작년 608명보다 무려 37%나 늘어났다.

현재 군이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대한노인회임실군지회 등 4개 기관이 수행하고, 30개 사업이 주축이 되고 있다.

이들 사업단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행복한 밥상'과 같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시장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약형과 시장형으로 각각 나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이다. 군은 고령에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예산도 지난 해 14억원에서 올해 2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일자리를 갖게 된 어르신들은 공공시설관리와 지역환경개선사업, 문화재보호활동, 경로당 취사도우미 등 공익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 다른 어르신들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행복한 밥상'과 같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시장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처럼 임실군이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정책은 농촌의 나이많은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인 도움과 함께 건강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30일에는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와 함께 일자리 어르신들을 대

상으로 한 문화활동을 가졌다.

이번 문화활동은 경로당 취사도우미 사업단을 비롯해 3개 사업단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 100여명을 모시고,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필봉농장에서 실시됐다.

경로당 취사도우미로 활동 중인 한 어르신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돈을 벌고 싶어도 일할 때가 마땅치 않아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일자리를 주니까 돈도 벌고 자신감까지 생겨서 사는 게 행복하다"고 말했다.

심 민 군수는 "일자리를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노인일자리 정책을 더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 일자리 정책에 각별한 애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국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

우수기관 최종선정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남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7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에 최종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전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250여개 민원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지실사, 미스터리 쇼핑 방식의 이용자 만족도 등 3차에 걸쳐 심사단의 엄격한 심사 절차에 따라 민원실 시설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남원시는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민원실의 시설·환경 등 외적요소와 시민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한 민원접근성, 민원서비스 운영 개선에 중점을 두고 민원실 직원들의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발굴·개선하고 타 기관의 민원서비스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추진하여 한층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년간의 끈질긴 도전으로 올해 2017년 국민행복민원

실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오는 11월 20일 '제8회 민원공무원의 날' 전국행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인증서(패)를 수여될 예정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작은 예산에서도 한계를 극복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동안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선진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결과, 2017년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민원실 환경과 서비스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농업발전 '견인차'
농업인대상 수상자 선정

남원시가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농업인을 발굴·시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남원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2017년 농업인대상을 선정 발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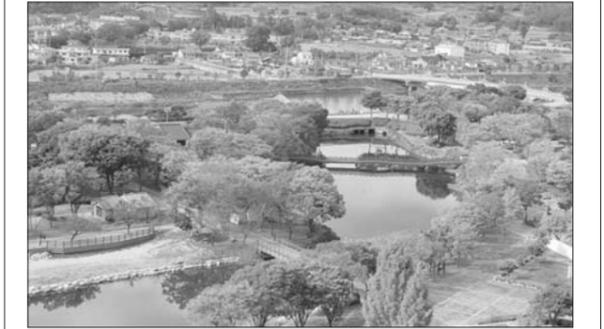
농업인대상 4개부문 수상자로는 고품질쌀부문에 주생면 윤한보씨, 원예특작부문에 송동면 서일수씨, 과수부문에 덕과면 강성철씨, 임업부문에 산내면 강동근씨 등 4명을 선정했다



수상자 선정은 30일 남원시 농업인대상 선정심의회에서 품목별 재배기술 향상과 고품질 생산 및 잘사는 농촌을 건설하는데 기여한 우수선도 농업인을 평가하여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수상과 관련, 중앙 및 전북도 농업

관련 각종 수상후보자 우선추천, 국내의 연수 시 우선선정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13일 남원시 이백면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2회 농업인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관촌면에 위치한 사선대의 가을 풍경.

임실 사선대, 가을정취 물씬

나들이·체험장소 각광

섬진강 상류의 맑은 물과 푸른 녹지가 어우러진 국민관광지 관촌면 사선대가 곱게 물들어가고 있다.

임실군 관촌면에 소재한 사선대는 오원천과 기암절벽, 수풀 등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으로 지난 1985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됐다.

두 신선과 네 선녀의 이름다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며 넓은 잔디밭과 체육시설, 분수대를 비롯해 청소년수련원이 위치해 있어 나들이와 체험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봄에는 연분홍빛의 철쭉꽃으로 물들고 여름에는 농소화, 조롱박 등 5종의 즐기기물을 아치형으로 만든 '경관터널'이 아름다워 사시사철 관광객이 즐겨 찾고 있다.

최근에는 사선대 곳곳에 자리 잡은 단풍나무, 느티나무가 저마다의 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다.

특히 시도유형문화재 제135호로 지정된 운서정에서 바라본 사선대 전경은 감탄을 절로 자아내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나무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목재문화체험장'이 문을 열어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며 체험도 할 수 있다.

또한 40여개의 다양한 작물이 전시된 조각공원도 또 하나의 볼거리이다.

군 관계자는 "사시사철 다른 매력 있는 사선대에 가족, 연인과 방문해 아름다운 추억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Advertisement for 'Imseol Cheese' (임실엔 치즈).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various cheese products and a background of a scenic landscape with a building. Text includes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The Capital of Korea's Cheese) and '임실엔 치즈' (Imseol Cheese). A small text box at the bottom left mentions '벨기에 출신 지경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판주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과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